

## 2 대학

# 건물출입 보안 허점 외부카드 전면 차단

이태영 기자 ysmhip6@knu.ac.kr

**【국제】** 국제캠퍼스(국제캠) 보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을 태그해야 열리는 건물 출입구가 ‘일반 신용카드’로도 열리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국제캠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선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을 건물 입구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태그해야 한다. 이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국제캠 각 건물 입구엔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상황관리실로 전화하시오”,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지문이 부착돼

있다. 외국어대학관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로는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모지까지 붙어있다.

하지만 국제캠 내 모든 건물 출입 문은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이 아닌, 외부인 명의로 된 일반 신용카드를 태그했을 때도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신문은 지난 7, 8일 양일 간 우정원과 제2기숙사를 제외한 국제캠의 모든 건물에 무작위 신용 카드 4장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관 ▲멀티미디어교육관 ▲글로벌관 ▲체육대학관 ▲선승관 ▲생명과학대학관 ▲국제경영대학관 ▲중앙도서관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로도 건물 출입구가 열리는 허점이 발견됐다.  
(사진=이태영 기자)

▲예술디자인대학관 ▲예술디자인대학 도예관 ▲학생회관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 ▲국제학관 ▲천문대 ▲학생회관의 출입구에서 ‘인증했습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출입문이 열림을 확인했다. 도예관 옆에 위치한 원예생명공학 온실에는 별도의 카드리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학교 보안업체인 KT텔레캅 측은 “일부 신용카드로만 문이 열리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

했다. KT텔레캅 김기덕 차장은 일부 신용카드로 학교 건물 출입이 가능하게 된 경위에 대해 “총무관리처로부터 경희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는 등록돼 있지 않으나, 학교에 출입해야 할 용무가 있는 외부인들을 위한 임시 출입증 발급을 요청 받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관부서인 대학본부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해당 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심야 투기 극성 야외 쓰레기 2배 늘어

김창호 기자 k.c.\_hoxx@knu.ac.kr

**【서울】**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캠퍼스 출입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시설 내 음식물 반입과 섭취가 금지되자, 야외에서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내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따르면, 야외 쓰레기 무단투기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즈음부터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4일 밤 11시 경 청운관 앞 녹원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각종 술병, 포장 상자, 플라스틱 용기, 막다 남은 음식물 등이 잔디밭과 벤치 곳곳에 가득했다. 한쪽 귀퉁이에는 쓰레기가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이 쓰레기들은 고스란히 청운관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김영록 씨의 몫이다.

김 씨는 “최근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캠퍼스를 출입하는 구성원 수가 줄어 쓰레기도 줄어들겠다 싶었는데, 그 전보다 양이 많거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음날이면 녹원을 가득 메우는 쓰레기는 매일 주변을 청소하는 김 씨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다.

학생회관 인근 동산, 노천극장 등의 상황도 녹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회관 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광희 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히려 쓰레기가 더 밀려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아침 까지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씨가 관리하는 행복기숙사 아름원 건너편 동산에는 여기저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다. 근처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지만,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최 씨는 “쓰레기통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렇게나 버리기는 매한 가지였다”며 “오히려 쓰레기통을 치웠을 때 쓰레기가 더 적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새벽 6시 무렵의 노천극장 또한 막다 버린 음료수부터 술병, 과자봉지, 마스크까지 다양한 쓰레기들로 지저분했다. 운동을 즐기고 음식물 까지 섭취한 후, 남은 쓰레기의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한 것이다. 노천극장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음악대학 관계자 A 씨는 “요즘 들어 새벽에 여러 음식을 먹고 나서 쓰레기는 그냥 두고 가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골치를 앓다 못해 이용 자체를 금지해버린 곳까지 생겨났다. 행복기



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쓰레기를 한데 모아 비교한 결과, 야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더욱 선명히 드러났다. 교내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한병완 씨는 “정상 학기에 비해 야외 쓰레기가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대면 수업, 실내 이용 제한으로 인해 (실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 쓰레기 총량은 20% 정도 줄었다는 것이 한 씨의 설명이다. 쓰레기의 오염 상태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한 씨는 “야외 쓰레기에는 내용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악취가 워낙 심해 분리수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강제로 제재 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관리인들은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주로 퇴근 시간 이후인 심야가 대다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미래혁신원 학생 지원팀 관계자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상황이라 하더라도 야외 시설 이용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야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사람들 스스로에 있다는 지적이다. 총무팀 이희포 팀장은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야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와 최 씨 또한 “즐겁게 놀고 음식을 먹었다면 적어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속적인 심야 음주, 고성방가, 그리고 쓰레기. 코로나19가 낳은 또 다른 자화상이다.

(사진=김창호 기자)

숙사 아름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야외 테라스를 임시 폐쇄했다. 행복기숙사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B 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테라스에서의

지속적인 음주와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이 모여 노는 것까지는 이해가 있지만, 적어